

# 계파 갈등 해소·보수 재건·총선 승리 과제

## 한국당 황교안號 출범

대여 관계 더 강경해질 듯  
바른미래 분당 가능성 낮아져  
'극우보수의 길' 총선가도 험란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다. 친박(친박근혜)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마'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한국당은 황 전 총리를 선택했다.

황 전 총리의 승리에 친박세력의 지원이 힘이 됐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친박진영의 선택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친박의 힘이 절대적인 한국당의 세력구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패함으로써 대권후보로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총선 승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대표 경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찌됐건 한나라당 당원들이 선택한 황 신임 대표 등 새 지도부는 앞으로 2년여 한국당을 이끌게 됐다. 무엇보다 새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우파 진영의 재건·통합과 함께 정부를 견제해 2020년 총선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갈등은 여전했고 총선에 대한 당의 필수 전략과 미래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전방이 갈려 바른정당으로의 분당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전 총리가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김순례, 조경태, 황교안 대표, 정미경, 신보라(청년최고위원) 위원. /연합뉴스

사태에 이른 2년 전 새누리당(옛 한국당)에서 한국당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미래를 위한 통합'을 내세웠지만, '과거에 대한 갈등'을 거듭한 모양새다. 나아가 한국당 전대가 '극단적 우경화'로 일궈졌다는 시선도 많다. 당 안팎에선 이번 전당을 놓고 '한국당이 과거 퇴행적으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한국당의 시계는 오히려 '탄핵'에서 더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새 지도부가 이 같은 우경화 논란을 진화할 수 있을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 그만큼 한국당 안팎으로 극우세력이 활기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7년 대선과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악몽'이 내년 총선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이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맴돈다. 제 1야당으로서 대외관계는 강경모드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황 신임 대표가 선거 내내 문재인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 스스로를 '문재인 정부와 싸울 사람'으로 선전했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접수'는 다른 야권에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경우 분당 가능성이 작아졌다.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탈당파가 한국당으

로 복귀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의 자강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평화당과의 연대 내지 통합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여당 민주당의 입장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황 신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에 대한 징계와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당 역학구조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극우보수의 길을 걸으면서 향후 총선과 대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아 황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5월 원내대표 선거 3파전

## 김태년·노웅래 선거운동 돌입...이인영 출사표

오는 5월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가나다 순)의 경쟁이 될 전망이다.

김태년·노웅래 의원이 일찌감치 몰림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인영 의원이 새로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이 됐다. 한 때 원내대표 도전이 점쳐졌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당 복귀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출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회의에 이어 이날 더좋은미래(더미래)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원활한 당정 관계와 총선 승리를 이끌고 원내에서 새로운 질서와 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대표 주자로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후보의 언급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노웅래 의원은 이미 선거운동에 들어가 한창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올해 초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친분(친문재인) 실세로 분류돼 왔다. 정책위의장에서 사임한 후 의원들과 두루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38표를 득표하며 소기 성과를 얻은 비주류 노 의원이 1년 내내 절치박마하며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데 정성을 들였다.

선거가 3파전으로 확대되면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애초 김 의원이 우세할 거라는 관측과 노 의원의 기세가 만만찮다는 분석이 혼재했지만, 이제는 이 의원이 독자적 공간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두 후보에게 쓸렸던 표심을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으로 대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대철 평화당 상임고문 광주시 '통일포럼'

## 통일시대준비위원회 100회 기념 토론회



외국어대 석좌교수의 '북한 핵문제: 평가와 전망'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가광사 조선태학고 교학과 교수,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

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회장 정대철·민주평화당 상임고문, 전 민주당 대표·사진)는 27일 오후 2시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진짜 비핵화와 가짜 비핵화의 기로: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제100회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정대철 회장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순수 민간 통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한 단체다.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대부 고 홍남순 변호사의 장남인 흥기훈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유익한 한국

화연구원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대철 회장은 "5·18 왜곡 망언으로 상처 입은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드리고 통일의 희망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 광주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적 체제 보장이 북미회담의 최종 목적지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과 가능성을 다루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5·18 망언' 김순례 지도부 입성...제명 어떻게?

## 최고위원 조경태·김광림·정미경·신보라 선출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의 '2부리그'였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조경태·김광림·김순례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이 당선돼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신보라 의원이 선출됐다. 조 의원은 8명 전체 후보자들 가운데 1위를 했다. 부산 사하를 지역구 4선인 조 의원은 19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이적해온 '비주류'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여풍(女風)'이 강하게 불면서 3명이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

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반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진 것이다. 원외인사인 정미경 전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그는 현역의원이 아님에도 조 의원 다음인 2위 득표를 했다.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쌓은 높은 인지도가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은 3위를 차지해 당선됐다. 그에게 덧씌워진 논란이 오히려 인지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대 당일에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당대회 출발로 당 윤리위에서 5·18 폄훼 관련 징계가 유보됐던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역의원 중에는 윤영석·윤재욱 의원이 낙선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한국당 최대 주주 격인 대구·경북(TK) 지역 인사들은 이번에도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경북 안동 지역구 3선인 김광림 의원이 4위로 득표가 하며 겨우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저만 게 대통령"이라고 막말을 한 김준

교 후보는 청년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로 선전했다. 이처럼 김순례 의원 당선과 김준교 후보 약진으로 한국당의 우경화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전당대회 시작 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의 기습집회가 벌어지면서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탄핵총투부정하는 황교안이 박근혜' '김순례 제명! 자유한국당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한국당 해체'를 연호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당 당원들이 '민노총을 연행하라'고 외치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되면서 행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여수갑·을 지역위원장에 주철현·정기명씨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에 주철현 전 여수시장, 여수를 지역위원장에 정기명 변호사가 최종 확정됐다. 27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제7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주철현·정기명 후보를 여수갑·을 지역위원장으로 각각 의결, 선정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강특위가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고, 조강특위는 지난 25일 제1



의를 통해 주 전 시장과 정 변호사를 최고위원회에 단수 추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

## 주주총회 소집 공고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15일 (금) 16:00
2.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3.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31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미처리결손금 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견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광양선박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63(중동)  
각자대표이사 이경희, 김형곤